# 1970年度의 特殊圖書館

成 宅 慶
(國會圖書館 參考書誌課)

## 1. 序

每年 年末이 되면 公私間에 지난 한해동안의 일을 回顧, 反省해 보고 앞날을 展望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은 人類만이 누릴 수 있는 特典이며 또 나날이 發展할 수 있는 動力이라 하겠다.

특히 開發途上에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1970年이란 祖國의 近代化 過程에 있어서 大望의 해로서 70년대 후반에는 우리도 後進이란 딱지를 벗고 先進國 隊列에 어깨를 겨누려고 全國民이 온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重要한 時點에서 우리 한국 特殊圖書館界는 지난 한해동안에 얼마만큼이나 자랐으며 얼마 만큼이나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反省, 回顧해 보는 것이 將來를 위해서도 퍽 유익할 줄 믿는다.

오늘 날 祖國의 近代化 乃至는 工業化에 全國民이 노력을 傾注하고 있는 이때 特殊圖書館 即 專門圖書館이 찾이하는 그 位置란 대단히 重大하다.

「情報化社會」가 되고 「콤퓨터」時代를 맞이한 오늘 날 모두 研究調査活動, 經營管理와 連關되는 情報의 蒐集·傳達·蓄積을 專擔할 專門圖書館은 他館種의 도서관보다 가장 現代的이고 또 도서관 다운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現實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最近에 이르러 모든 部門에서 「情報」의 重要性이 차차 認識되고 있는것 같지만 그러나 그 「情報」의 蒐集·蓄積·供給이 專門圖書館을 通해서만 가장 迅速하고도 效率的으로 처리되는 것까지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나라 모든 産業界의 實業家나 管理層의 爲政者들이 이러한 點을 切實히 느낄 때, 또 우리 나라의 企業體들이 零細性을 벗어나 그 規模가 커질때 特殊圖書館界가 活發해 질것이고 直接的이고 有效한 情報를 提供해서 實利的인 要求와 結付되는 專門圖書館의 機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他館種에 比해 그 歷史가 가장 짧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나라 專門圖書館을 韓國圖書館協會가 作成한 圖書館統計를 通하여 1955年以來 表로 만들어 그 成長狀況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體的으로 年年이 조금씩 數的으로 늘어나고 있다.

〈表 1〉

| 년 도 | 도서관수 | 직 원 수 | 열람좌석수 | 장 서 수 |
|---|---|---|---|---|
| 1955 | 15개관 | 103명 | 526석 | 187,374책 |
| 1956 | 31 〃 | 168〃 | 1,388〃 | 265,172〃 |
| 1957 | 42 〃 | 202〃 | 1,730〃 | 442,153〃 |
| 1958 | 41 〃 | 174〃 | 2,078〃 | 470,445〃 |
| 1959 | 45 〃 | 183〃 | 1,802〃 | 509,256〃 |
| 1960 | 41 〃 | 188〃 | 1,123〃 | 494,284〃 |
| 1962 | 46 〃 | 245〃 | 1,658〃 | 552,884〃 |
| 1963 | 66 〃 | 309〃 | 2,288〃 | 659,087〃 |
| 1964 | 72 〃 | 420〃 | 2,654〃 | 541,284〃 |
| 1965 | 71 〃 | 472〃 | 2,721〃 | 623,850〃 |
| 1966 | 81 〃 | 520〃 | 2,680〃 | 827,864〃 |
| 1967 | 99 〃 | 558〃 | 3,541〃 | 912,134〃 |
| 1968 | 111 〃 | 622〃 | 2,772〃 | 1,113,857〃 |
| 1969 | 129 〃 | 699〃 | 3,147〃 | 1,418,878〃 |
| 1970 | 135 〃 | 690〃 | 3,411〃 | 1,674,370〃 |

1970年 2月末日 現在 全國의 特殊圖書館數는 135個館으로서 1館當 人口 약 22萬이 되며, 1館當 藏書數는 약 1萬2千책이다.

「유네스코통계」에 의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專門圖書館 가운데 1館當 人口가 가장 적은 나라는 「책코」로서 2千名이고, 1館當 人口가 가장 많은 나라가 印度로서 2百38萬6千名이며, 不名譽스럽게도 우리 나라가 두번째로서 35萬9千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66年통계에 의한 것 같다.

同 통계에 의하면 1館當 藏書數가 가장 많은 나라가 「노루웨이」로서 48萬3千책이다.(註1)

위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는 1個館當 現在 1萬2千책으로서 圖書館의 內容面에서 우리의 圖書館들이 얼마나 不充實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 2. 1969年과 1970年의 對比

지난 한해동안의 우리 나라 特殊圖書館의 成長狀況을 「한국도서관통계」 1970年2月末 現在에 의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表에서 보면 大體的으로 各項目마다 조금씩 增

(註 1) 國會圖書館 編, 국회도서관보 V. 7, N. 4. pp. 15~17.

〈表 2〉

| 區分 \ 년도별 | 1969 년 도 | ※1970년도 | 증 감 |
|---|---|---|---|
| 도 서 관 수 | 129個館 | 135個館 | +6個館 |
| 봉사對象者 | 213, 616명 | 207, 116명 | −6, 500명 |
| 독 립 건 물 | 10동 | 14동 | +4동 |
| 좌 석 수 | 3, 147석 | 3, 411석 | +264석 |
| 직 원 수 | | | |
| (전 문 직) | 223명 | 209명 | −14명 |
| (비전문직) | 476명 | 481명 | +5명 |
| 장 서 수 | 1, 418, 878책 | 1, 674, 370책 | +255, 492책 |
| 년간증가책수 | 116, 335책 | 139, 425책 | +23, 090책 |
| 잡 지 수 | 15, 170책 | 17, 522책 | +2, 352책 |
| 신 문 | 2, 426종 | 2, 823종 | +397종 |
| 년 간 이 용 자 | 539, 923명 | 596, 968명 | +57, 045명 |
| 예 산 | 457, 168, 135원 | 519, 356, 243원 | +62, 188, 108원 |

※ 1970년의 各 項目數字는 「한국도서관통계」 page 10의 특수도서관집계표에 page 11의 國會圖書館의 各項目數字를 合計한 것임.

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1968年統計表와 1969年 統計表와의 差異, 即 위의 期間에 늘어난것 보다는 各項目마다 줄어 들고 있다.

增加된 圖書館數에 있어서도 1969年에는 18個館이 增加하여 1968年의 약 16%가 늘어났는데 比해 1970年에는 6個館으로서 1969年의 약 5%밖에 늘어나지 못했으며, 豫算面에서는 1969年에 154,476천원이 증가하여 1968年의 약 51%가 늘어난데 比해 1970年에는 62,476천원이 늘어나서 1969年의 약 13%밖에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지난 한해동안에 特殊圖書館界의 成長이 그 前해에 比해 훨씬 沈滯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위 表에서 도서관 봉사의 直接的인 手段이 되는 專門職員數가 14명씩이나 줄어 들었다는 것은 圖書館奉仕의 質을 그만큼 떨어트렸다는 結果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特殊圖書館의 地域的인 分布狀況을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에 全體圖書館의 약 80%가 集中되어 있다.

設置者別로 살펴 보면

| | |
|---|---|
| 국·공립기관 | 78개관 (약 58%) |
| 정부보조단체 및 공기업체 | 30개관 (약 22%) |
| 기 업 체 | 23개관 (약 17%) |
| 기 타 | 5개관 (약 3%) |
| 計 | 135개관 |

이다

學問專擔部門別로 살펴 보면

| | |
|---|---|
| 人文·社會科學部門 | 88개관 (약 65%) |
| 科學·技術部門 | 47개관 (약 35%) |

등이다.

先進諸國에서는 정부기관의 特殊圖書館이 大體로 20%內外이고 主로 협회, 단체 또는 기업체의 私立圖書館이 主가 되고 있다.

또 學問專擔部門別도 人文·社會科學部門보다는 科學·技術部門의 도서관이 많은 수를 찾이하고 있다(註2)

우리 나라의 特殊圖書館統計도 이와 같이 정부의 行政力에 이끌리어서 운영되는 도서관이 아니고 民間人들의 直接的인 要請에 의해 設立된 特殊圖書館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科學·技術部門의 도서관수가 훨씬 더 많을 때 祖國의 近代化에 이바지하는 活發한 圖書館奉仕가 이루어질 것이다.

### 3. 圖書館大會

1970年度 特殊圖書館大會는 例年과는 다르게 새로운 方法으로 進行되었다.

特殊圖書館部會란 워낙이 雜多한 類型의 圖書館들이 서로 다른 學問主題를 다루기 때문에 特殊圖書館大會가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筆者도 本誌를 通해서도 언젠가 記述한바 있는 것으로 記憶되며, 大會席上에서도 累次 말한바 있는 平素의 持論이었다.

이러한 點을 考慮하여 KORSTIC에서 70년도 特殊圖書館大會를 推進한 것으로 믿는다.

特殊圖書館이라면 어느 圖書館이나 다 關心을 가질 問題 即 「정보 유통의 체계화 방안」을 ① 정보자료의 수집, ② 상호대차, ③ 공동목록의 작성, ④ 정보의 배포등으로 區分하여 KORSTIC의 金宗會 先生이 議題로 발표하고 이에 對하여 1) 과학기술기관 및 기업체 분과, 2) 정부 및 군기관 분과, 3) 인문·사회분과 등 大略的 類型別로 나누어 「정보유통의 체계화 방안」을 토의하였다.

그래서 70년도 特殊圖書館大會는 새로운 方法이 처음으로 試圖되었지만 從來의 圖書館大會보다는 훨씬 유익했었다고 믿는다.

여기에 한가지 더 添加하고 싶은 일은 大學圖書館을 포함시키는 일이다.

前章의 통계에서 全國의 特殊圖書館이 135개관이라 하였다.

그러나 全國의 129개 大學도서관들도 그 취급하는 학문주제別 및 장서면에서 볼 때 特殊圖書館으로 看做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大會를 通해 連繫를 지으므로서 보다 효율적인 圖書館奉仕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저의 着想도 아니고 이미 先進國에서

(4면에 계속)

(註 2) 國會圖書館, V. 7, N. 4. pp. 16~17

를 부탁드리고 싶다.

둘째로 公共圖書館大會

이 大會는 每年 開催하는 年例行事이지만 이 大會가 始作된지도 거이 10年이 되어가고 보니 大會의 性格이나 方法에 있어서 한번 再檢討되어야 할 段階임을 느끼고 있는 것은 會員들의 衆論이기도 하나 今年度의 大會도 例年과 비슷하게 進行되었다. 大會 場所는 晋州市立圖書館에서 開催되었으며 主題發表는 다음과 같다.

외국의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강일세
공공도서관의 직제의 제도화 문제…최창균
도서관학의 문제점…이 홍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김 문현

이 發表 主題를 보면 두가지로 大別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發展國家의 圖書館 活動을 알고 이를 우리의 現 公共圖書館에서 어떻게 適用하여 對民奉仕를 위해서 改善시켜야 할 것인가에 目標를 두었다고 하겠고 두번째로는 앞에서 言及한 公共圖書館의 本籍問題의 解決을 試圖하려는데 目標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目標에 대해서 이 해를 넘기는 이 마당에 아무 냄새가 없다. 來年에도 쉬지말고 繼續的인 解決을 위한 對策과 努力이 있어야 하겠다.

세째로 韓國地域社會 및 公共圖書館 實態調査 發刊

이 實態調査 報告書는 公共圖書館部會에서 調査 分析한 報告書로서 큰 收獲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다. 特히 內容에 있어서 從來의 實態 調査가 圖書館에만 極限한 點이 있었으나 公共圖書館의 社會敎育的인 面에서의 알맞는 奉仕活動을 地域社會의 特性에서 展開하기 위한 方法을 摸索하려는 意圖로 各 地域社會의 實態를 比較的 仔細하게 分析하였음은 地域別 公共圖書館의 奉仕活動의 政策 樹立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 結 論

以上에서 더듬어 본 것과 같이 今年度의 公共圖書館의 發展으로의 指向 過程에서 볼 때 解決되지 못한 重要課題들이 內外的으로 한두가지가 아니며 이 課題들은 公共圖書館의 發展의 길을 마련해 줄수 있는 基本的인 要素들인 것이다. 이 要素들의 解決을 위한 政策的인 圖爭이 없이는 社會敎育機關으로서 公共圖書館의 機能發揮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問題가 그러하드시 筆者의 私見으로서는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위해서는 國家的인 長期 公共圖書館의 振興策을 關係行政當局과 共同으로 樹立하여 重點別 年次別로 振興시켜 나갈 수 있는 計劃的인 育成 開發事業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또 이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 圖書館人만이 參加할 것이 아니고 各階 各層의 人事들을 參與시켜 支援과 協助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또 來年으로 移越시켜야 할 課題로서 가장 重要한 것은 現 公共圖書館 所屬의 一元化, 財政確保, 專門職의 確保, 運營의 近代化, 文敎部의 全國市郡區單位圖書館 設置 5個年 計劃에 의한 公共圖書館의 增設등의 課題들이 하나 하나 段階的으로 면밀한 政策과 戰略으로 打開되도록 다시 한번 決心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註) 公共圖書館의 概況에서 說明한 分析的인 實態는 公共圖書館部會에서 發行한 "한국지역사회 및 공공도서관 실태조사"를 參考資料로서 引用하였다.

******************************************

(9면에서 계속)

는 다만 設置者別로 區分한 大學도서관이란데 拘礙되지 않고 大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이 서로 연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主題別部도 전문분야의 장서를 수집하고 전문적인 정보써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特殊도서관으로 看做하고 있다(註3).

## 4. 結 言

이상에서 우리 나라의 특수도서관 현황 및 1970年度의 成長狀況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지난해에 圖書館協會에서 發刊한 金京一 著「特殊圖書館」이란 책자를 빠트려서는 안될 줄 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特殊圖書館에 對한 圖書가 特殊圖書館인 中央敎育硏究所圖書館에서의 體驗을 살려서 著述한 이 책은 1970年 特殊圖書館界의 큰 成果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特殊圖書館의 發展을 위해서 前章「圖書館大會」篇에서도 말했듯이 또 이미 出帆을 한 9개 대학 도서관과 12개의 병원도서관이 모여 한국 의학도서관협의회를 組織하여 專門部門에 對한 活發한 토의와 活動을 하고 있듯이 대학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이 設置者別로 區分한 部會構成과는 別個의 學問主題別 기구를 구성하여 圖書館奉仕에 對한 硏究活動이 活發히 進行되어야 할 줄 믿는다.

<참 고>

韓國圖書館協會 編,「한국도서관일람 1969」
韓國圖書館協會 編,「한국도서관통계, 1970년」
國會圖書館 編,「국회도서관보」1970年 5月號

(註 3) Kruzasu, A.T. Business and Information Lab. in the U.S. 1820~1940, New York Special Lib. Associ, 1965.